

이용객 ‘뚝’...광주버스터미널 부지 축소한다

30년 전 당시 예상 이용인원 10분의 1 “효율적 운영 위해 불가피”
 청주고속터미널·서울 상봉버스터미널도 부지 축소·복합 개발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부지축소 용역 검토, 구조조정 탄력 전망

금호고속이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의 부지 면적 축소를 추진하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14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따르면, 1992년 개장 당시 일 평균 이용객 4만7000명이 지난해에는 1만명(9996명)에 못 미치는 등 5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30년 전 일 평균 이용객 최대 9만5000명을 예상하고 건설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용객이 10분 1에 불과했다. 금호고속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을 이용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830회로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하루 평균 운행 횟수 1436회와 비교하면 42%가 감소한 것이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출발 횟도 50여개에서 32개로 20여개 줄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부지 면적은 10만1150㎡(약 3만597평)인데, 이용객이 개장 당시와 비교해 5분 1가량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 부지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를 축소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지 않은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청주고속터미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3만9359㎡에서 1만2673㎡로 3분 1가량 축소해 49층 상업시설 1동과 45층 아파트 2동을 중심으로 복합 개발하고 있다.

서울 상봉시외터미널도 터미널 부지를 2만8526㎡에서 1569㎡로 대폭 줄이고 터미널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지상 49층 규모의 5개 동으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과 코로나19 여파에다가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행태가 변화되면서 승객수가 정상화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객 수가 30년 전과 비교해 급감한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지 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 文정부 태양광 사업 부당·위법 사례 전면 조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발표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적발된 위법·부당 사례는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로 1406건, 1847억 원이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전사업자는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 사업은 건물 공사비나 부가세 등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모든 대출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발전사업자 등을 지은 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곳들도 적발됐다. 거짓이나 허위를 끼운 대출이었고, 관련 매출이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농지더라도 버섯재배시설이나 근초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 등을 지은 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곳들도 적발됐다. 거짓이나 허위를 끼운 대출이었고, 관련 매출이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서류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 전수조사에서는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사례도 총 845건에 583억원이었다. 조끼계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융복합사업 점검에서는 4대 보험료 등 정산금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코스모스와 역새의 만남 1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판판드에 펼쳐진 황화코스모스와 역새가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7~9월 사이에 개화하는 황화코스모스는 노랑코스모스보다 불리며 꽃잎이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진행’

윤병태 나주시장, 항소 관련 입장문 발표

나주시가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SRF 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와 마라톤 토론 끝에 항소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고형연료(SRF)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지

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보관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수분과 중금속 납 성분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해 10월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난방공사 측이 제기한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

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나주시는 “난방공사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신청했다”며 “지난해에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만으로도 SRF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난방공사를 포함한 연료 공급과 직접 관련된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24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원형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명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